

운영위 국감... ‘임종석 DMZ 방문’ 공방

한국 “대통령 순방 중 품 잡아”

민주 “평양선언 이행 점검”

장하성 “경제위기, 과한 해석”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 한 6일 국정감사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비무장지대(DMZ) 방문 논란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 달 17일 임 실장은 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 현장인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를 찾았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함께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임 실장이

전방 시찰할 때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가 있었다”며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에 남북 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장관, 차관, 국정원장을 데리고 가서 품을 잡더라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국에 출타했는데 국방장관과 차관, 통일장관, 국정원장이 한꺼번에 DMZ에 들어가고 되느냐”고 지적한 뒤 GP 통문번호가 관련 동영상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 “군사기밀 보호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임 실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 위원장인데 국방·통일장관과 평양공동선언·판문점선언 이행 점검을 위해 공식적으로 지뢰제거 작업 현장을 점검했다”며 임 실장에게 답변 기회를 줬다.

이에 임 실장은 “남북합의 사업 중 가장 보람 있는 현장이 바로 유해발굴 사업 현장이라 위원회가 결정해서 갔다”며 “오해를 받는 데 대해서는 억울해하기보다는 자리가 갖는 특수성과 무거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웃음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어 “지적을 많이 받는 것이 선글라스인데, 햇빛에 눈을 잘 뜨지 못하고 많이 약하다”며 “국군의 날, 현충일 행사 때도 선글라스를 썼는데 이번에는 오해를 받게 돼 더 웃음을 여미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가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표현은 경제적 해석으로만 할 때 굉장히 과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또 “(소득주도성장)이) 전제 노동자 중 75%에 해당하는 임금근로

자에게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며 “아쉽게도 자영업자 등 25%에는 성과를 못 내고 어려움을 겪어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20년 동안 투자와 수출중심으로 성장해 경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한계에 이르렀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길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판문점선언은 유엔 회원국들이 회람하고 있고, 지지 결의는 현재 협의 중”이라고 답변을 통해 밝혔다.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여부에 대해선 “정부로서는 계속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반드시 두 개 회담(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징계수위 오늘 결정

평화당 윤리심판원 논의 결론 못내... 직접 출석 요구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 수위가 7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지난 5일 오후 늦게까지 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징계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의원은 자세한 사건 개요 등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고, 심판원 회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제명 등의 처분을 결정하지 못했다며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심판원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반성하며,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당이 어떤 처벌을 하더라도 겸허히 수용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평화당은 7일 이 의원이 직접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 의원은 전날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뇌사상태에 빠진 운창호씨의 친구들에게 “면목이 없다”며 사과했다. 운창호씨의 친구 김모씨가 이날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 의원은 “친구가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법안을 같이 발의를 하고 잘 해결해 주어야 할 사람인데 이렇게 물의를 일으켜 친구에게도 누가 되는 것 같고 창호군 도와주는 여러분들께도 제가 참 면목이 없다”며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당 비대위 “전당대회 연기 불가능” 쟁기

전원책 제기 연기로는 일축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조지강화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전원책 변호사의 ‘전당대회 연기론’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쟁기를 박았다. 하루빨리 쇄신 작업을 마무리하고, 예정대로 내년 2월 말에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내 초선 의원들과 조찬 모임을 하는 자리에서 “2월 말까지 비대위 활동을 마무리하겠다”며 “비대위가 그립을 잡고 혁신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조강특위의 활동 기한과 관련해 “12월 중순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전 변호사가 제기하고 있는 전당대회 연기론을 일축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조만간 재선 의원들과도 만나 비대위 운영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조강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용태 사무총장 역시 지난 5일 전 변호사와 만찬을 하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전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조강특위를 길게 갖고 가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지만, 김 총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내년 6~7월 전당대회를 누가 용납하겠나. 정치평론도 정도껏 해야지, 당을 전부 뒤집어 놓으려고 한다”며 “전 변호사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염수정 추기경 “교황 방북 환영... 평양 동행”

이해찬 대표 염 추기경 예방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6일 명동 성당을 방문,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했다.

염 추기경은 이 자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과 관련, “평양교구장 서리를 맡고 있어서 평양 방문을 적극 환영한다”며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 같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대표가 전했다.

염 추기경은 또한 “우리가 함께 사니까,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사는 게 중요하다”며 노숙자 문제 등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요즘 전제를 포용하는 포용국가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우리 사회가 너무 양극화가 심한 사회다. 전제를 포용하는 기본 가치관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여기저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천주교가 있어 마음에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다”면서 “교황께서 여러 세계 분쟁 지역 같은 것을 잘 해결을 하시는 게 많은 믿음을 준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취임 후 종교지도자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이 대표는 기독교와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지도자도 차례로 찾을 계획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OECD 보다 낮아” vs “정책부터 내놔야”... 23조원 일자리 예산 충돌

국회 예결위 심사 이틀째

여야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23조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예산 적정성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예산은 경제협력기구(OECD)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총 54조원의 일자리예산을 쏟아부었고 고용 부진을 막지 못했다며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맞섰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OECD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일자리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OECD의 GDP(국내총생

산) 대비 일자리예산 비중 평균이 1.3%인데 우리나라는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에서는 일자리예산의 집행률을 지난 6월 기준으로 부진하다고 비판하는데 이것도 잘못됐다”며 “9월말 기준 집행률은 81.5%이고 10월말 기준으로 하면 더 올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삼석 의원은 “국민은 물론 기업인들마저도 ‘평화는 경제다’라는 화두에 화답하고 있다. 그런데도 남북협력기금(1조977억원)은 터무니없이 적게 편성됐다”며 기금예산의 확대 편성을 주장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남북관계 경색됐을 때도 1조1000억원이 넘었는데 오히려 줄었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좀 늘려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고용은 잠사, 분배는 쇼크, 산업투자설비는 빈사 지경”이라며 “문재인정부가 편성해 집행한 일자리예산 54조원이 아무 효과도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도소매업 10만명, 30대 취업자 수는 10만4000명이 감소하는 등 민간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고용을 증가시킬 정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질의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장하성 정책실장의 대변인 이냐는 등의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비판수위가 도를 넘었다며 일제히 반발, 수심분간 질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이곳은 정부를 상대로 취조하거나 수사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국무위원들에게 자국적인 언사, 대변인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견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정제를 망쳐놓은 각료들에 대한 야당 의원의 비판에 여당은 경정해야 한다”며 “조금만 아프면 각료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는 건 야당 질의의 연속성을 끊으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인문	신 학 과	16
	한국어교육학과	1
사범	유아교육과	2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
예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7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 전형일 : 2019. 1. 10(목)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 집 인 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신학과(Ph.D.)	6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석박사통합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신학과(Th.M.)	25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신학대학원 (특별전형) • 원서접수 : 2018. 11. 20(화) ~ 11. 28(수)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일반전형)
• 원서접수 : 2018. 12. 3(월) ~ 12. 12(수)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